

국제유가 반등 업계 부담

금년 1분기에 배럴당 3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국제 유가가 몇 달 만에 7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하반기가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경기바닥론이 주장되고 있으나 유가 급등이 경기회복의 애로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유가가 70달러선을 넘어서자 정부와 기업은 지난해 경제를 악화시켰던 고유가 기억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6월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0일 70달러를 넘었고 11일에는 국내 주도입 유종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두바이유 현물 가격도 전날보다 배럴당 1.71달러 뚫은 70.95달러선에 형성됐다.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70달러를 넘었던 것은 지난해 10월 14일(73.75달러)이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값도 ℓ 당 평균 1600원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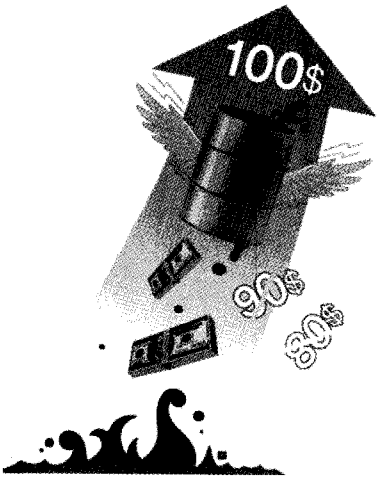
두바이유가 지난해 10월 이후 70달러 돌파

이는 달러 약세와 올해 세계 석유 소비 증가 전망 때문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최근 세계 석유 수요 예상을 하루 1만배럴 상향 조정했다. 5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석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올 석유 소비 전망치 상향 조정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EIA는 올해 평균 원유 가격이 58달러70센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 달 전 예상치인 52달러 보다 6달러70센트 올려잡은 것이다. 내년 평균치 역시 당초의 58달러에서 67달러42센트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세의 주 원인으로 투기 세력들의 머니 파워를 지적했다. 세계적인 경기 부양으로 유동성이 확대되어 유가 상승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기 호전이라는 실적은 없지만 달러 약세와 풀린 자금이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는 점이 유가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부추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각국 유동성 증가로 투기 조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수요 증가가 단기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달러까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내내 70달러 후



반대를 기준으로 등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에 대한 조기 회복 기대와 과도한 경기 낙관론으로 국제유가가 극단적 변동세를 보

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유가와 원자재가 먼저 상승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태 한은총재도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원유 가격은 작년만큼 대폭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원유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의 유가 급등세는 수요 증가라기보다 달러 약세로 갈 곳 없는 투기 자금이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유시장에 몰려온 것이 커 보인다면 투기 자금이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지난달부터 국제유가의 상승폭이 커졌다면서 수급 요인이 아닌 금융투기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으로 업계 부담 점차 높아져

주요 제조업체들은 환율 하락이 유가 상승효과를

상쇄해 아직은 부담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고유가 추세가 올 하반기로 이어지면 실물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전자제품 메이커들은 유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전자업체도 원유를 직접 원자재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직접 부담은 적으나 다른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냉장고, 세탁기 등 크기가 큰 제품을 수출할 때 물류비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환율과 유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원가, 생산, 판매 등 전 부문에서 영향을 주는 유가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고유가는 차량 유지비 부담을 늘려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수요감소를 낳는다. 고유가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은 차량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다시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자동차업계는 에너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유가동향에 대응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물류비 상승 가능성

정유업계는 내심 반색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종은 반짝 호황을 누리는 업종으로 주목을 받는다. 원유가격 부담이 늘어나지만, 제품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가 정제마진의 저점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분석 보고서에서 정유사들의 가동률 조정과 2분기 각국 정유사의 설비 보수가 집중되면서 생산

“

냉장고, 세탁기 등 크기가 큰 제품을 수출할 때
물류비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이지만
환율과 유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아직은 견딜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량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유사의 수익지표인 정제마진이 현 수준에서 등락하며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은행은 6월 11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이탈리아에서 12일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3% 가까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 세계경제 하향 전망

이러한 전망치는 3월 말 세계은행이 예측한 -1.75%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졸릭 총재는 “금융시장이 지난 몇달 사이에 추락 양상을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침체의 충격파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졸릭 총재는 선진국 경제가 종전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위축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의 가능성은 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풀리고 은행의 자본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3월 말에 경기전망을 제시할 당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3%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날 성명에서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물론 개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에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최근 이를 2.4%로 올려 잡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